

나노코리아 2025 개최 결과(요약)

올해 23회를 맞는 나노코리아 2025가 'Nanotechnology for a Better Life'라는 슬로건 아래, 7월 2일부터 3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

- ◆ 전시회는 424개사 746부스 출품, 11,267명 관람
- ◆ 컨퍼런스는 21개국 1,224편 연구성과 발표, 2,124명 등록

1 공식행사

- 개회식에는 국내 정관계 인사 및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코리아 개막을 축하하고 국가 나노융합산업 발전을 기원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,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현 과장, 한국나노융합산업협회 홍순국 회장,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안진호 회장 등 200명 참석



테이프 커팅식



투어

- 어워드는 산업기술과 연구혁신 분야에서 국무총리상, 장관상 등 총 22점을 수여하여 우수 연구자 및 기업의 사기를 진작
 - 산업기술 부문 국무총리상은 '고온 내구성 투명 전도성 코팅액 제조 기술'을 출품한 (주)나노솔루션이 수상
 - * 산업부 장관상: 스타크테크, 에이치엔에이파마켄, 케이이알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형부품센서연구실, 김택훈 전문연구원(삼성전자), 박재홍 책임(나노종합기술원)
 - 연구혁신 부문 국무총리상은 '나노바이오 가스센서 기반 비침습 폐암

진단 시스템'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대식 책임연구원이 수상

* 과기부 장관상 : 이관형 교수(서울대학교), 이승우 교수(고려대학교), 이상영 교수(연세대학교), 박성준 교수(아주대학교), 이경균 그룹리더(나노종합기술원), 오형석 책임연구원(한국과학기술연구원)



어워드1



어워드2

② 주요세션

- (기조강연) 최신 나노기술연구 및 산업 현황과 미래 트렌드에 대해 산업계와 연구계에서 2명의 저명인사가 발표, 430명 참석
 - 산업계에서는 LG전자 정수화 부사장이 '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제조 기술과의 융합'을 주제로 발표
 - 연구계에서는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교 에바 올슨 교수가 '전자 현미경으로 여는 미래 소재의 세계'에 대해 발표
- (나노비즈포럼) 'AI와 나노의 융합으로 만드는 미래산업의 혁신'을 주제로 6명 발표, 150명 참석
 - LG AI연구원에서는 AI for Scientific Discovery를 주제로,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는 배터리 소재의 혁신과 AI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



기조강연



나노비즈포럼

③ 전시회

- 전시회는 424개사 746부스 출품 및 11,267명 관람하는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마련
- 전시회는 나노를 중심으로 접착·코팅·필름, 레이저, 첨단세라믹, 스마트센서 분야와 함께, 적층제조, 나노바이오, 첨단계측기기 등 신규 전시를 포함한 총 8개 분야가 동시에 개최
- 전시회에는 친환경 자체 발광 QD-EL 디스플레이(삼성전자), TGV Seed Layer SPT 및 기능성 유리소재(LG전자), 아크방전식 SWCNT (나노솔루션)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들이 424개사 출품
- 나노융합 R&D 성과홍보관은 반도체, 디스플레이, 바이오, 차세대 통신 등 기술 분야에서 정부 R&D 우수 성과물을 전시



전시장 전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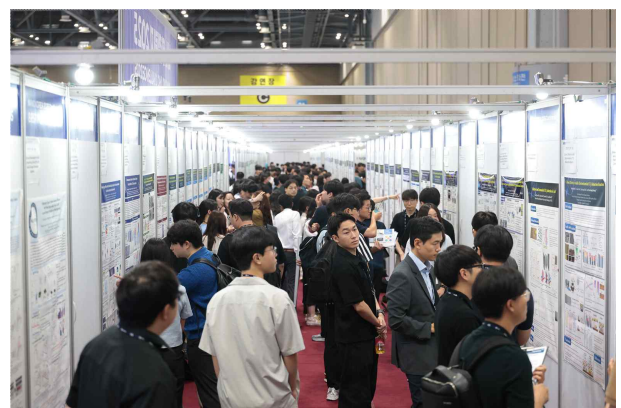
R&D성과관

4 컨퍼런스

- 나노바이오를 중심으로 14개 기술분과 구성, 21개국 1,224편의 연구성과 발표
 - 3일간 세계 저명인사의 플레너리 세션을 운영하여 나노소재 분야의 최신연구성과 공유 및 연사와 참가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
 - * 발표연사 : 현택환 교수(서울대학교), 오마르 야기 교수(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), 타카오 소메야 교수(도쿄대학교)
 - 나노바이오, 정보전자, 매뉴팩처링, 소재, 에너지, 환경, 표준화 등 14개 주요 기술분야 및 이외 세션에서 총 196명의 초청강연과 구두 및 포스터 발표 1,028편 진행
- 컨퍼런스 유·무료 등록자 총 2,124명 및 3일간 세션 누적 참가자 총 3,184명 기록
 - * 등록구분 : 유료등록 1,431명 / 무료등록 693명



플레너리 세션



포스터세션

끝.